



[뉴스] 푸르덴셜·더K손보 등 보험 M&A 큰 장 02



Economy

코스피	2060.74 (-8.15)	코스닥	617.61 (-7.66)
금리 (미국 3년)	1.43 (+0.02)	환율 (원/달러)	1190.20 (-4.10) (5일)



제56회 무역의 날 기념식

‘흔들리지 않는 무역 강국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삼성동 코엑스에서 ‘무역의 날’ 기념 행사를 하고 있다. 사회자 안내에 따라 연출대 버튼을 누르자 무역선 출발 모습이 무대 중앙 스크린에 나타났다. /연합뉴스

K-바이오 기술수출 잇따라 낭보... 총 4조

알테오젠, 1.6조 규모 기술수출 등 바이오벤처 3개사 대규모 계약

국내 바이오벤처들이 올해를 마감하며 잇달아 대규모 기술수출의 낭보를 전하고 있다. 기술수출로 수령하는 금액 규모는 4조원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내년 초까지도 큰 건의 기술수출이 더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3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바이오벤처 세곳이 최근 한달간 글로벌 제약사와 대규모 기술수출 계약을 맺었다. 바이오벤처 지아이노베이션은 지난 달 28일 중국 제약사인 심시어와 면역항암제 GI-101에 대한 중국 지역의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을 통해 GI-101에 대한 중국 지역(홍콩, 마카오, 대만 포함)에서의 독점적 개발 및 상업화 권리도 획득하게 됐다. 지아이노베이션은 심시어로부터 반

납의무가 없는 계약금 600만달러(약 70억원)와 이후 임상개발, 허가, 상업화, 판매 등 단계별 마일스톤으로 최대 7억9000만달러(약 9000억원)를 순차적으로 받게 된다. 제품 출시 이후에는 심시어의 순 매출액에 따라 두 자릿수 비율까지의 경상 기술료 (로열티)도 받는다.

GI-101은 지아이노베이션 보유한 이중융합단백질 개발 기반기술인 ‘지아이-스마트’ 플랫폼을 이용해 만든 면역항암제다. 면역 관문억제 뿐 아니라 면역세포 증식과 활성화하는 두 가지 기전이 동시에 작용해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는 혁신적인 면역 항암제로 내년 6월 미국과 한국에서 동시에 임상 진입을 앞두고 있다.

알테오젠은 지난달 29일 10대 글로벌 제약사와 총 1조 6190억원 규모의 ‘인간 히알루로니다제(ALT-B4) 기술’에 대한 비독점 기술수출 계약을 체결

했다고 밝혔다. 반환 의무가 없는 계약금은 1300만달러(약 153억원)로, 수령 가능한 최대 금액은 13억7300만 달러(약 1조6190억원) 규모에 달한다. 알테오젠은 해당 기술을 여러 제품에 적용해 각 국가별로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허가를 받거나 판매 이정표를 달성하면 마일스톤을 받기로 했다. ALT-B4 기술은 세계 두 번째 재조합 인간 히알루로니다제 효소로 바이오의약품의 정맥주사를 피하주사로 대체하는 원천 기술이다.

백신개발 바이오 벤처 큐라티스도 같은 날 인도네시아 1위 국영기업 바이오파마사에 성인·청소년 결핵백신 ‘Q TP101’의 라이선스와 독점판매권을 제공하는 계약을 맺었다. 규모는 1조 2000억원에 달한다. 큐라티스는 이번 계약을 통해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글로벌 임상시험을 담당하게 된다.

/이세경 기자 seilee@

안정 속 세대교체로 딥체인지 실행력 ↑

SK그룹 임원인사 단행

그룹안정 방침... 인사폭 최소화 사장 승진 9명, 신규선임 108명 주요 계열사 CEO 대부분 유임 여성임원 7명 선임 ‘역대 최대’



박성하 신임 대표이사

이용욱 SK머티리얼즈 사장

SK그룹이 임원 인사를 통해 안정과 세대교체 ‘일석이조’를 노린다.

SK그룹은 5일 수펙스추구협의회를 통해 앞서 관계사 이사회가 결정한 임원 인사와 조직 개편을 최종 확정했다.

올해 임원인사는 처음으로 보직을 통합해 규모를 대폭 줄였다. 사장 승진 9명과 신규 선임 108명, 총 117명에 불과하다. 주요 계열사 최고 경영자도 대부분 유임하면서 안정을 추구했다.



최진환

SK브로드밴드 사장

차규탁

SK루브리컨츠 사장

SK는 “주력 관계사 CEO의 경우 큰 변화없이 안정적인 리더십을 기반으로 하되, 각 사별 부문장급 임원들의 경우 세대 교체로 통해 불확실성이 커진 글로벌 경영환경을 극복하고 딥체인지 실행력을 높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세대교체와 쇄신 노력도 빼놓지 않았다. 수펙스추구협의회 산하 에너지·화학위원장을 SK이노베이션 김준 사장에, 커뮤니케이션 위원장을 SK장동현 사장에 새로 맡겼다.

수펙스추구협의회 협회사 CEO 4명도 신규로 내정했다. 박성하 수펙스추구협의회 전략지원팀장이 SK C&C 사장으로, 차규탁 기류사업본부장이 SK루브리컨츠 사장으로 이동한다. SK브로드밴드도 최진환 ADT캡스 대표를 새로 맡았다.

내년부터는 반도체 사업 시너지도 본격화한다는 의지를 보였다. SK머티리얼즈 장용하 사장이 SK실트론으로 이동하고, 그 자리에 이용욱 SK 투

자2센터장이 새로 보임됐다.

반도체 사업 중심인 SK하이닉스는 진교원 D램개발사업담당을 개발제조 총괄 사장으로, 진정훈 글로벌 디벨롭먼트 그룹 담당을 사장으로 임명했다.

그밖에 SK바이오팜 조정우 대표를 대표이사 사장으로, 박찬중 디스커버리 총괄을 대표이사 사장으로 승진 조치하며 힘을 실어줬다. SK유니버시티 사장에는 조돈현 수펙스추구협의회 HR지원팀장이 새로 보임됐다.

임원 다양성도 확대했다. 신규 임원 중에는 여성이 역대 최대인 7명이나 됐다. 그룹에서 여성 임원이 총 27명으로 대폭 늘었다.

외국인인 장웨이 중국사업개발 전문가와 에릭 데이비스 AI전문가도 새로 임원으로 선임하면서 글로벌 문화 확산에도 힘을 실었다.

SK그룹 관계자는 “이번 인사는 행복 경영의 초석을 다지기 위한 사람과 조직의 재설계라는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김재홍 기자 juk@metroseoul.co.kr

대학들 뿔났다... “획일적평가 폐지, 자율권 달라”

한국대학교육협, 교육부·기재부에 163개 대학 동의 대정부 건의서 전달



정책에 이견을 담은 건의를 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대학 총장들이 교육부의 획일적인 대학기본역량진단을 폐지하고, 대학혁신지원사업비를 자율적으로 쓰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국가장학금 II유형 참여조건 완화를 제안해 사실상 등록금 동결·인하 정책의 중단을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4년제 대학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163개 이상의 대학 동의를 얻은 3가지 요구를 담은 대정부 건의문을 4일 교육부와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

건의문은 등록금 동결정책, 학령인구 감소 등에 따른 대학 재정난과 고등교육 질적 저하를 막기 위해 대학들의 의견을 모은 것으로 다수 대학이 정부

대학들은 우선 교육부가 2021년 시행을 예고한 대학기본역량진단(시안)을 ‘재정지원대학’, ‘미지원대학’, ‘감액지원대학’으로 구분해 선정하는 등 기존의 획일적 상대평가를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 또 최대 규모 재정지원사업인 대학혁신지원사업비의 용도제한, 1년 단위 연차평가와 이를 통한 사업비 중도 삭감·재배분 등을 폐지하고 사업비의 완전 일반지원 전환을 요구했다.

건의문에는 특히 등록금 동결·인하와 관계없이 학부등록금 대비 교내 장학금 비율이 15%를 넘으면 국가장학금 II유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는 제안도 포함됐다. 대다수 대학의 교내 장학금 비율이 이를 상회하는 걸 고려하면, 사실상 대학 등록금 동결·인하 정책 폐지를 요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2017회계연도 기준 사립대 등록금 수입 대비 교내장학금 비율은 19.5%까지 증가했다. 반면 대학들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직전 3개년도 불가 인상률의 1.5배 이내에서 등록금을 올릴 수 있으나, 교육부의 재정지원 연계에 따라 11년째 등록금 동결·인하 상태다.

대학들은 “등록금 동결과 인하 등으로 대학의 예산이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고, 교육과정 운영에 투입할 수 있는 재원이 대폭 축소돼 교육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며 “교육의 질 유지를 위한 가용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용수 기자 hys@

文, 차기 법무부 장관에 추미애 지명

검찰개혁 완수 책임자 기대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장관직 취임 35일만에 사의를 표명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후임으로 ‘현정 사상 최초 지역 5선 여성 국회의원’인 추미애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를 내정했다. 여권 중진 인사인 추 전 대표의 법무부장관 내정은 ‘부진했던 검찰개혁의 마침표’를 찍겠다는 문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드러난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법무부장관에 내정된 추 의원은 소외계층의 권익보호를 위해 법학을 지닌 소신 강한 판사로 평가받았다”며 “정계 입문 후에는 현정 사상 최



초 지역구 5선 여성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며 뛰어난 정치력을 발휘해 왔다”고 말했다. 고대변인은 “판사·국회의원으로서 쌓아온 법률적 전문성과 정치력, 그리고 그간 추 내정자가 보여준 강한 소신과 개혁성은 국민들이 희망하는 사법개혁을 완수하고, 공정과 정의의 법치국가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도 했다.

여권에서는 추 내정자가 검찰개혁을 완수할 책임자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이는 추 내정자가 그간 보여준 성과와 연관이 깊다. /우승훈 기자 dn1114@